

# 기아, '더 뉴 K5' 출시... "고객 이동경험 바꿔 놓을 것"



디자인에 기아 미래비전 반영  
'OTA' 등 첨단사양 대거 적용  
가솔린 모델, 2784만원부터

기아의 대표 중형 세단 K5가 4년만에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해 새롭게 돌아왔다.

2일 출시된 '더 뉴 K5'는 상품성 개선으로 침체된 중형 세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특히 더 뉴 K5는 사전계약 개시 5일(영업일 기준) 만에 6000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최양석 기아 국내마케팅1팀 팀장은 "K5의 사전계약 5영업일 동안 6000대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비중이 높았고, 1.6 터보 모델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간 판매 목표는 시장 상황과 외부환경 등의 변동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기아 더 뉴 K5.

하고 있던 최소 3만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 K5는 이전 모델보다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으로 강한 느낌을 연출했다. 여기에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맵 라이팅 리어 콤파넌이션 램프를 후면부에 적용해 강렬한 외관을 완성했다. 실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를 탑재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 등 첨단 기술이 군

더더기 없는 간결함을 이뤘다.

주행 성능도 한층 강화됐다. 기아는 K5에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성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차체와 앞유리 접합부 소재를 보강하고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소음도 줄였다. 아울러 뒷좌석에 이중 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해 정숙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첨단사양 역시 돌아온 K5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요소다. 기아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반의 경험을 고



기아 더 뉴 K5 마션 브라운 실내 모습.

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K5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기아 디지털 키2 ▲빌트인 캠2 ▲eHi-pass(하이패스)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뒷좌석 6대4 폴딩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대거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전은석 기아 MLV프로젝트3팀 팀장

은 "고객 만족도가 높았던 기존 K5 디자인에 강인함을 더하기 위해 방향성을 부여했다"며 "실내선 커넥티드 시스템과 대화면 디스플레이,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K5의 트림을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기본 트림 트렌디를 제외한 프레스티지·노블레스·시그니처 등 3개로 최적화 운영한다.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2784만원부터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3954만원 사이에 트림별로 다양하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요한 페이즌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실 상무는 "K5는 기아 디자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기아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디자인은 고객의 이동 경험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정유·석화업계, 60兆 폐플라스틱 시장 공략

폐플라스틱 활용 사업 경쟁 치열  
대규모 공장 착공... 공급망 확보도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확대로 정유·석화업계가 치열하게 폐플라스틱 활용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활용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SK지오센트릭과 LG화학의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해중합·고순도 폴리프로필렌(PP) 추출 기술을 동시 공략하는데 집중하며 LG화학은 국내 최초 원료용 열분해유 생산 공장 착공에 나선다.

2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60조원으로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보인다. 석유화학업계는 2027년 약 83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사는 대규모 폐플라스틱 공장을 짓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2025년 울산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 울산 ARC'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 ARC에는 열분해 공정이 탑재돼 고순도 PP 추출과 해중합을 포함한 3가지 기술을 모두 가동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더불어 영국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기업 '플라스틱 에너지'와 충남 당진시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2공장을 건립을 추진한다.

LG화학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당진에 총 3100억원을 투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짓는 중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초임계 열분해 기술을 통해 연간 2만톤의 열분해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해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이들은 폐플라스틱 조달 능력을 키우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탄소 중립이 대두됨에 따라 폐플라스틱 소재의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정해 졌고, 품질이 좋은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업체 간 수급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SK지오센트릭과 LG화학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 폐비닐을 공급받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된 폐플라스틱을 타기업에 공급하는 데에도 한창이다. SK지오센트릭은 글로벌 포장재 기업 암코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플라스틱 원료 공급협약을 맺었다. LG화학은 쿠광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쿠광 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스트레치 필름을 수거한 뒤 이를 재활용해 쿠광에 다시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이노텍, '협력사 역량강화 센터' 오픈

PLC, 로봇 등 다양한 분야 교육

동반성장지수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LG이노텍이 협력사 역량을 키워주며 상생 노력을 이어간다.

LG이노텍은 11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협력사 역량강화 훈련센터'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통해서다.

LG이노텍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훈련 센터를 새로 마련했다. 축적된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와 전문인력을 파견하며 협력사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

훈련센터는 협력사 31개사에 생산기



술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PLC(자동화시스템의 컴퓨터 전자장치)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

내년부터는 생산기술에 더해 품질,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를 확장해 2027년까지 총 1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철동 사장(사진)은 "협력사의 지원방식은 LG이노텍의 입장이 아닌 협력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협력사의 성장은 LG이노텍의 성장과도 직결되기에 함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juk@

## 한화오션, '태국 D&S' 참가... 靑 방산시장 추가 수주 모색

미래무인전력지휘통제 등 전시

한화오션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통한 '초격차 방산' 솔루션 확보를 넘어 아시아 시장에도 문을 두드리는 등 영역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오션은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태국 D&S(Defense & Security) 2023' 전시회에 참가해 아시아 방산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태국 D&S 2023' 전시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방산전시회로 50개국 500개 업체, 35개국 400개 공식대표단이 참가한다.



오는 6일부터 '태국 D&S(Defense & Security) 2023' 전시회에 참여하는 한화오션 부스 모습 /한화오션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독일, 헝가리, 중국 등의 방산 기업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남

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며 주목 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태국에 수출했던 3000톤급 호위함,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장보고-III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전시한다.

한화오션은 전시회 기간동안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활발한 미팅과 상담을 통해 추가 수주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 SK이노,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지원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

컨설팅 등 탄소감축 설비 도입 독려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 남구 SK 울산Complex(울산CLX)에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부 등 SK이노베이션 계열과 거래하는 협력사 80여곳을 초청해 '동반성장·ESG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 협력사 경영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구매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SK이노베이션 실무진은 ESG 추진현황, 윤리경영, 준법감시 등 ESG 경영과 관

련한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양섭 SK이노베이션 재무부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ESG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다"며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가 곧 SK이노베이션의 ESG 역량 강화라는 인식 하에 관련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의 ESG 경영이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탄소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소기업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설비 도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현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